

# 김운룡과 그의 소설연구



김운룡 편저

김운룡은 역사를 짚어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그는 역사의 시간우를 엄숙히 거닐면서 오늘의 시간우에다 깊고도 넓은 사색의 의미망을 얹어놓고 그 특유의 좌표를 세우려고 고심 참담한다. 그는 민족의 뿌리문화 찾기와 생존문화의 맥을 잇는 작업에서 그 누구보다도 혼신을 쏟고있는 작가로 주목된다.

료녕민족출판사

# 김윤룡과 그의 소설연구

김룡운 편저

료녕민족출판사



◎ 金龙云 2005

图书在版编目 ( C I P ) 数据

文学审美与民族意识: 评金云龙小说 / 金龙云主编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5. 7

ISBN 7-80722-053-8

I. 文... II. 金... III. ①金云龙—中篇小说—文学评论—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金云龙—长篇小说—文学评论—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42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5) 第 067271 号

---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 刷 者: 沈阳市六〇六所印刷

幅 面 尺 寸: 140mm × 203mm

印 张: 14 $\frac{1}{4}$

字 数: 350 千字

插 页: 8

印 数: 1—600

出版 时间: 2005 年 7 月第 1 版

印刷 时间: 2005 年 7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 金顺玉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赵京花

---

定 价: 40.00 元

联系电话: 024—23284348

邮购热线: 024—23284335

E-mail: ln mz@mail. lnpgc. com. cn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나 주 나 아 아 나 나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독립투사 윤병웅이 김운룡에게 보낸 편지



百煉明神丹

号 拜外印已办至本司各件

大孫是懷才不遇來當伊有

先生體懷芳度外名利最重此實觀之迹

吳保蘭於外一萬也此等亦非其好也

韓公亦亦望漸良好外吾事務建

日就月將外軍政器外養外密悔外客

言自其雄辯同其言其外其著牙上其集

[illegible]

齊民要術

丁巳年二月廿五日

此後亦宜隨時注意，至貴小女因患

此二部不許出外要註明

二、繪圖因比例關係，其畫法甚多，而

[illegible]

果能止亦人美上子藥用止上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二十、二十一、二十二、二十三、二十四、二十五、二十六、二十七、二十八、二十九、三十、三十一、三十二、三十三、三十四、三十五、三十六、三十七、三十八、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四十六、四十七、四十八、四十九、五十、五十一、五十二、五十三、五十四、五十五、五十六、五十七、五十八、五十九、六十、六十一、六十二、六十三、六十四、六十五、六十六、六十七、六十八、六十九、七十、七十一、七十二、七十三、七十四、七十五、七十六、七十七、七十八、七十九、八十、八十一、八十二、八十三、八十四、八十五、八十六、八十七、八十八、八十九、九十、九十一、九十二、九十三、九十四、九十五、九十六、九十七、九十八、九十九、一百。

[illegible]

會同王日建 楊自反 王

陰七月十三日 李伯成

故屬咸知 乙亥年 客外 崔永成 父 謹示

大英一千九百零九年四月

藏地研究

## 력사사명을 짊어지고 오늘을 사는 작가

김룡운

### (1)

력사의 시간우를 엄숙히 거닐면서 오늘의 시간우에다 깊고도 넓은 사색의 의미망을 얹어놓고 그 특유의 삶의 좌표를 세우려고 고심참담하는 작가가 바로 김룡운이 아닐가.

20여년간의 피타는 각고끝에 마침내 당당한 력사소설가로 부상한 김룡운, 그가 날이 갈수록 학계와 평론계의 중시를 받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김룡운은 문학의 변두리지대인 통화지구에서 자기나름대로 붓대를 들고 오래동안 고군분투하다보니 솔직히 말해서 《광야의 아리랑》이 세상에 나오기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별로 중시를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그는 피타는 노력의 대가로 풍성한 창작의 열매를 따냈으며 마침내 우리 조선족문단의 명실공히한 작가의 한사람으로 우뚝 일어섰다. 그의 창작의 길에 늘어선 빛나는 리정표들이 김룡운이란 과연 어떤 작가인가를 명증(明証)하게 말해주고있다. 1979년에 처녀작

《한 실련자의 눈물》(한문)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전처》, 《흘러간 세월》 등 중단편소설 70여편을 발표하였고 단편소설집 《사랑의 그림자》, 중편소설집 《화려한 시절의 동화》, 장편소설 《밀림의 딸》(공저), 《새벽의 메아리》 전기 《리홍광의 이야기》, 《남만봉화》, 《김구평전》(한문), 역저시집 《5천년의 사랑》, 대하력사소설 《광야의 아리랑》(1, 2, 3부)을 창작하였으니 실로 그 성과를 자랑할만하다. 그중 사시적인 장대한 스케일로 엮어진 대하력사소설 《광야의 아리랑》은 김운룡의 전반 소설을 대변하는 금자탑으로서 그 신선한 충격은 우리 조선족문단에 불어온 한갈래 훈풍으로 되고있다.

김운룡의 작가적위망은 대하력사소설 《광야의 아리랑》의 탄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세워진다. 2003년 4월 연길에서 김운룡의 대하력사소설 《광야의 아리랑》연구세미나가 룡성하게 열렸고 잇달아 많은 평론가, 학자, 작가들이 그의 작품을 가치의 분동으로 가늠하면서 거론하기 시작했다. 다시말하면 김운룡소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집대성한것이 바로 《김운룡과 그의 소설연구》평론집이다. 이 한권의 론문집을 통해 우리는 소설가, 력사학자, 인간으로서의 김운룡을 똑똑히 알게 된다. 무려 30여편의 비교적 분량이 있는 론문이 실려있는 이 책은 김운룡소설의 득과 실에 대해 비교적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자리매김을 하고있다. 이 연구저서가 소설분야에서는 《김학철론》(1994년)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 작가에 대한 소설연구저서라는데서 중국조선족문학사에 하나의 획을 긋게 될것이다.

김운룡은 이중성격의 신분으로 보아야 할 사람이다. 그는 력사학자이면서 소설가이다. 이런 연고로 그의 대부분의 소설

들은 역사속에서 잉태되고 역사흐름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되 진실하고 엄숙하게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작가가 역사를 가감없이 원형대로 복구하고 재현시키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 학자로서의 량심과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참된 인간으로서의 용기가 수요된다. 역사란 때론 승리자의 점유물로 충당되어 오도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오래갈수도 있다. 그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에서 진정한 작가는 절대로 망설이지 않는다. 김운룡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이미 활자화 되어나간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사와 항일투쟁사에 회의를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아 중국조선족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장장 20여년간 동북3성과 전국 각지를 편답하면서 수많은 진실한 자료들을 장악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사에 길이 빛날 순국선열들》, 《독립군의 전투》, 《한국독립운동자료총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만주개발 40년사》, 《동아권업주식회사 10년사》를 통독했고 몇백만자에 달하는 《독립군대왕편지》, 《독립군 참가자 조사자료》, 《독립군과 유관된 일본, 위만주국 당안자료》, 《반역자 탄백자료》 등을 발굴하고 연구하였다. 그는 또 연구자의 착실한 태도로 《조선독립군의 동북항일투쟁에서의 특점과 역사작용》,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건립의 역사작용을 론함》, 《김좌진을 살해한 홍수와 민족반역자 문제에 관하여》 등 비교적 무게 있는 역사론문들을 적지 않게 발표하였다. 그는 진실한 자료를 손에 쥐기 위해 동북3성을 주름잡은 것은 물론 근 20여년간 전국 각지를 편답하면서 파란많은 역사의 장하를 오르내렸다. 호남성에 가서 상해립시정부 당시 무정부주의자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류자명교수를 만났고 광주에 가서 조선의용군 후에 리건우를 찾아보았고 중경에 가서

독립군 후에 리소심을 만났고 상해에 가서 조선의용군 후에 리선옥을 찾아보았다. 글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력사의 산증언자——독립군 투사 윤병용(尹秉庸)이 사망을 며칠 앞두고 김운룡한테 띄운 편지 한통을 원본대로 옮겨본다. 김운룡은 독립군 투쟁사를 료해하기 위하여 윤병용투사를 수차례 만났고 그런중에 우의가 두터웠다. 첫번째 편지는 분실되고 두번째 편지만 남아있다. 이 편지가 자못 중요한것은 그 편지가 작자를 몹시 감동시켰고 그 편지에서 계기를 받아 《광야의 아리랑》이란 제목이 나왔기때문이다. 《자네 김운룡이가 온다고 하여 그렇게 기다렸으나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황야로 가네. 3천리 저 조국통일을 못보고 가는 이 마음 슬프나 헤아릴수 없는 독립지사들이 광야우에 쓰러졌으니 슬픔보다 그 숨결소리 세월속에 길이길이 남겨있으리. 尹秉庸 一九七八年八月二十四日》

김운룡은 중국조선민족의 백년사를 연구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부분이 금이 갔거나 탈락되었거나 잘리웠다는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로 하여 가슴 아파하고 격분해하다가 마침내 그것들을 소설의 형식으로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력사를 바로잡는 과정이 곧 금기를 깨는 과정이고 오도된 력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고 참된 작가의 량심과 용기가 일어서는 과정이다.

김운룡은 대하력사소설 《광야의 아리랑》의 창작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력사의 실상은 광복이후에도 리념의 명예를 지고 오도되어왔습니다. 이런 점을 항상 마음의 짐으로 생각해오던중 이 글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금기를 깨고 시작한다는 각오로 립했으며 또한 중국에 뿌리박고 사는 이백만 조선족동

포들이 역사적배경과 이에 따른 항변을 소설로 시도하고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보기 드문 작가의 사명감이요, 학자로서의  
 량심이요, 참된 인간으로서의 용기라 하겠다. 바로 이런 사명  
 감과 량심과 용기가 있었기에 김운룡은 《광야의 아리랑》을  
 써낼수 있었고 《마침내 리념의 금기를 깨고 역사현장의 생생  
 한 기록을 바탕으로 랭전시대에 잘려나간 공간을 제자리에 살  
 려》 놓을수 있었다.

## (2)

김운룡한테서 귀중한것은 전위의식과 초월의식이다. 고금  
 중위의 문학사를 펼쳐보면 무릇 성공한 작가들에게는 모두 시  
 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초월의식이나 전위의식이 동반되어있  
 다. 스타달이 그러했고 돌쓰또이가 그러했고 유고가 그러했고  
 마크트웨인이 그러했고 로신이 그러했다. 우리 중국조선족문단  
 에서 성공하고있는 작가나 시인들을 보아도 모두 전위의식과  
 초월의식이 있다. 김운룡의 전위성은 문학기교보다도 사상내  
 용상에서 나타난다. 그는 우리 문학의 매 시기마다 남들이 다  
 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 먼저 시선을 돌리곤 하였다.

진실한 이야기와 문학을 접목시켜 쓴 《리홍광의 이야  
 기》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새로운 력사시기에 들어선후  
 우리 중국조선족문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전기문  
 학작품이다. 이 작품은 예술성에서는 그저 그러루하나 민족의  
 력사를 파내여 세상에 알렸다는데서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리홍광의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우리에게서 자기  
 민족의 항일영웅을 주인공으로 하여 쓴 전기문학은 없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리홍광이란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하였고 피어린 항일투쟁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가를 알게 하였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알게 하였다.

한문으로 쓴 《김구평전》은 우선 우리 민족작가가 한어로 쓴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사라는것, 그리고 처음으로 민족의 영웅이고 독립투사이며 상해임시정부의 최고인물을 문학화하였다는데서 의의가 크다. 김구는 마땅히, 언녕 우리 조선족사회는 물론 13억 중국인에게 알려야 할 위대한 인물이건만 우리는 여직껏 이데올로기의 멍에에 짓눌려 과감하게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였다. 분명히 중국땅에서 독립운동과 중국항일전쟁에 참가한 걸출한 민족영웅이건만 우리의 후대들이 김구같은 인물을 잘 모르니 이것 역시 우리 민족의 비극이요 역사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 면에서 작가 김운룡은 과감히 금기를 깨고 역사의 진면모를 세상에 알리고있다. 비단 우리에게 알려주었을뿐만아니라 13억 중국인들에게 지난날 우리 민족이 해온 독립투쟁사와 항일투쟁사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민족을 더 투철히 이해하게 하였고 따라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강렬한 역사의식에다 진실성을 가미한 《밀림의 딸》(1984년 료녕민족출판사)은 소년, 소녀들로 조직된 《철혈단》이 일제와 용감히 싸운 빛나는 사적을 소설로 형상화한 아동장편소설이다. 소설은 비록 문학성이 결여하고 민족관계의 표시 등 일부 면에서 빈구석이 두루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국 조선족문단에서 처음으로 되는 아동장편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문학사적의의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수 없다.

중편소설 《전쟁터의 너인라채상》은 중국대륙에서 저지

른 일제의 비인간적인 사무치는 죄장을 고발한 작품이다. 일제의 침화전쟁때 수많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위안부들도 비인간적인 비참한 인생고를 겪었다. 위안부문제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찍힌 잊지 못할 커다란 상처로서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글들이 발표되었기에 그리 희한한 화제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편소설로 되어 세상을 향해 고발하기는 아마도 《전쟁터의 녀인라체상》이 제일 처음인줄로 안다. 역시 전위적인 작가정신의 소산이라 하겠다.

가족사를 통해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직결시키고 나아가서 조선반도 통일의지까지 내비친 《가족아리랑》도 그 시도가 무척이나 신선하다 하겠다. 《가족아리랑》은 그의 중단편소설중에서 《력사인식과 민족생존의 의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장춘식 《력사의식과 민족사 드러내기》) 작가는 오늘의 언덕에 서서 어제의 역사를 조감하면서 민족생존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아리랑》은 《광야의 아리랑》의 땀아일수도 있고 기석(基石)일수도 있다.

김운룡의 적지 않은 소설 이를테면 《곰사동황말구》, 《압록강의 녀》, 《황금세계》 등에서는 조선족문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새 시기의 녀성형상을 주조해내고있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남성중심주의가 점차 해체되고 녀성의 힘이 나날이 커지는 이른바 권력이전(權力移轉)의 사회적현상이 서서히 머리 든다. 작품의 녀주인공들은 아주 담이 크게 홀로서기를 하면서 남성세계와 전반 사회에 도전한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과감히 사랑을 추구하고 금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땀땀이 제 힘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녀성군체의 형상이 만들어지고있다. 비록 이런 작품들은 인물형상이 단조롭고 서술이 전통양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리념에 치우친 경향들이 보이긴 하지만 새 시기에 페미니즘에 접근하는 문학의 장을 맨 처음으로 열었다는데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것이다.

장편소설 《새벽의 메아리》는 중국조선족력사소설령역에서 시공을 확대확장시켰다는데서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지난날 항일투쟁사를 묘사했거나 해방전쟁사를 다룬 그 시공이 연변이나 길림지구에 국한되어있었고 더 넓어야 동북3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기에 반해 《새벽의 메아리》는 소설의 활동무대를 광주에까지 확대시켰다. 《광야의 아리랑》 소설공간은 이보다 더 광활하여 조선반도, 로씨야, 중국을 망라한다. 이것은 우리의 력사소설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생각하면 또 너무나 순리에 따른것이라 해야겠다. 력사자체가 그렇게 되었던것이다. 김운룡은 방대한 력사자료를 장악하였기에 《새벽의 메아리》나 《광야의 아리랑》 같은 장편력사소설을 쓸수 있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황포군관학교에는 제3기부터 조선인학생들이 많았다는것, 그것이 한국림시정부와 당시 국민당정부와의 교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 오성룡과 리영이 황포군관학교의 교관으로 있었다는것, 광주봉기에서 조선인청년들이 몇백명 희생되었다는것을 알게 되며 중국혁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조선인투사들이 희생되었는가를 알수 있다. 물론 이 작품은 경직된 리념의 영향을 받아 광주봉기에 참가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만을 언급하고 그외 광주봉기에 참가했던 무정부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무시한 등 치명적인 약점들도 좀 있긴 하지만 제일 처음으로 광주봉기를 소설화하고 소설의 공간을 확대시킨것으로 하여 소설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김운룡은 서정성으로 문체혁신을 꾀하고있는데 이것도 전

위성의 일종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운룡소설의 서정성에 대하여 한춘, 조성일, 최삼룡, 김성화, 김룡운 등 평자들이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소설에서의 서정성체현에 있어서 김운룡은 확실히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단언컨대 우리의 소설들 중 《광야의 아리랑》처럼 방대한 가사와 시를 작품속에 끌어 들인 소설은 없는줄로 안다. 이러한 서정매체들은 《서정성을 높이고 비극성과 민족특색을 진하게 하고 인물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며 때로는 주제를 암시하거나 제시해준다.》(김룡운, 《력사의 진실성과 가치관 및 룰리관》, 2003년 《문학과 예술》 제2호)

비단 《광야의 아리랑》뿐만아니라 기타의 여러 중단편소설들에서도 가사와 시들이 많이 끼여들어 색다른 맛이 나게 하며 그것이 엄연히 김운룡식의 소설풍격을 형성하고있다. 례 하면 중편소설집 《화려한 시절의 동화》, 단편소설집 《사랑의 그림자》, 장편소설 《새벽의 메아리》, 전기문학 《김구평전》(한문) 등에 동원된 노래와 시들이 어렵직작하여도 150여수가 확실히 된다. 김운룡소설에서의 문체혁신은 문학경향이나 문학사조로서의 혁신이나 갱신과는 무관한 순 서정으로서의 혁신이다. 김운룡은 서정을 소설창작에서의 하나의 필수도구로 서정적발광체로 사용하면서 신선한 문체형식의 구축에서 나름대로의 일로를 걷고있다. 단지 력사소설뿐만아니라 기타 일반 소설들에서도 가사나 시를 도구로 리용하여 문체특색을 살리고있다. 그것들은 필요불가결의 서정적발광체(发光体)의 구실을 한다. 물론 소설에 시와 노래를 인입하여 글맛을 돋구는 수법을 김운룡이 발명한것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학·전통인바 중국에는 《삼국지》, 《수호전》, 《홍루몽》, 《청춘의 노래》 등과 같은 작품이 있고 조선에는 《구운몽》, 《옥

루몽》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 조선족문단에서도 일부 소설가들이 이런 수법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속에 70여수의 방대한 노래와 시를 도입한 작가는 김운룡이 유일무이한 사람인줄로 안다.

진실한 역사자료에 의한 신빙성 획득에서도 김운룡이 앞자리에 서있음이 분명하다. 《광야의 아리랑》과 《김구평전》만 보더라도 안중근의 시, 이토오의 시, 원세개의 시, 김택영의 시, 두보의 시, 독립투사 리상룡이 만주로 망명을 때 압록강변에서 지은 시, 독립투사 윤봉길이 김구의 뒤통을 노래하여 지은 시, 국민당의 풍옥상장군이 김구 모친이 세상을 떴을 때 추모하여 쓴 시, 국민당의 오경주선생이 김구일행이 상해를 떠나 조선으로 귀국할 때 지은 시, 상해임시정부 포고문... 등등은 살아 생생한 역사의 증언으로서 김운룡소설의 신빙성 획득에서 자못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고있다.

김운룡소설의 파격적(탐구)행위는 《광야의 아리랑》에 이르러 《계급투쟁말살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일반적인 파격이 아니라 아방가르드적인 파괴행위다. 지난날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들에서 계급투쟁을 다루지 않은 소설이란 거의 없었다. 어떤 평자들은 김운룡의 소설에 계급투쟁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하여 유감으로 부족점으로 생각하고있다. 맑스주의는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인정하고있으며 많은 작가들이 지난날 여기에 준하여 글을 써왔다. 그러나 김운룡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철칙》을 망각했거나 무시해버리고 계급투쟁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권력언어의 의미망을 벗어난 이런 작법이 구경 옳으나 그르나 하는 시비는 얼마든지 할수 있겠지만 필자는 《광야의 아리랑》이 안고있는 그 특유의 가치관에 의해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고